

##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사람을 창조하시되

### 1. 창조의 절정인 인간 (1:26-31)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설명하면서 인간 창조에 관해 가장 많은 설명을 곁들인다. 이는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간 창조가 창조의 절정에 속한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1:26-28). 또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공작(工作)에 의해 창조된다(2:7, 22)는 점에서 창조의 정점에 속하는 존재이다.

####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전통적으로 교의학(=조직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뜻한다고 이해해 왔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6에 나오는 “형상”(체렘)이나 “모양”(드무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다른 것을 본떠서 만든 모상(模像)을 뜻한다고 보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을 닮게끔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인간을 몸과 정신 또는 영혼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전인(全人)으로 보는 구약성경의 기본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완벽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개역 개정판 본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26절과 28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련성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요컨대 인간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유사 본문들, 특히 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본문들을 배경으로 하여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이집트나 바벨론 지역에서는 왕을 일컬어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왕권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왕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근동의 평행 문헌들과 큰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는 오히려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아담”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창세기 본문이 한때는 왕에게만 돌려졌던 사실, 즉 지상의 왕들이 “신의 형상”으로서 왕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이 신의 형상으로서 지상에서 그 신을 표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을 증거함과 아울러,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함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이처럼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시편 8:5-8(표준 새번역)에 매우 잘 반영되어 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 (2)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이러한 의미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왕적인 통치권을 갖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福)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인간이 특별한 존재임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은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복에 더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른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의 복을 추가로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강조는 창조의 날들을 셈함에 있어서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정관사가 없이 ‘욘 에하드’(첫째 날), ‘욘 세니’(둘째 날), ‘욘 설리쉬’(셋째 날), ‘욘 르비이’(넷째 날), ‘욘 하미쉬’(다섯째 날)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만큼은 정관사(히브리어로 ‘하’)를 붙여 ‘욘 하쉬쉬’(그 여섯째 날;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에는 반영이 안 됨)라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다(29절).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30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사람을 비롯한 온갖 생명체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식물을 마련해 주시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 지탱해갈 수 있게 해 주셨음을 뜻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이 본문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마태 6:25-28).

## 2.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 (2:4b-25)

### (1) 사람을 지으시기 전의 상황 (4b-5절)

창세기 2:4b 이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한다. 그 서두는 “아웨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4b절)라는 말로 시작한다. 개역 개정판은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문 단락을 나누고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2장 4b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4절). 4절의 이러한 내용은 1:1-2:4a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create, ‘바라’ 동사)하시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2:4b 이하의 내용은 아웨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make, ‘아사’ 동사)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실제로 5절은 땅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으며, 바로 이어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보태고 있다. 5절의 상황 묘사에 의하면, 맨 처음의 땅(earth, ‘에레츠’)에는 물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직 사람을 만드시기 전이므로 땅(ground, ‘아다마’)을 갈 사람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초목(나무)이나 채소(풀) 역시 전혀 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 (2) 살아 있는 존재가 된 인간 (6-7절)

그러다가 땅(earth, ‘에레츠’)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메마른 땅(ground, ‘아다마’)의 표면을 적시므로써(6절) 사람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물에 적셔진 땅(‘아다마’)의 흙(dust, ‘아파르’)을 가지고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드는 것과도 같이 사람 모양을 빚어 만드셨다(욥 33:6; 사 29:16; 45:9-10; 64:8; 렘 18:1-11). 그리고서는 그 빚어진 것의 코에 생명의 기운(生氣; the breath of life)을 불어넣음으로써 그 흙덩이로 하여금 살아 있는 존재(a living being, ‘네페쉬 하야’)가 되게 하셨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빚어 놓은 진흙덩이로부터 살아 있는 존재, 곧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들을 준다. 첫째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땅과 깊은 관계를 가진 존재요 땅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암시함과 아울러 사람은 누구나 그 본 재료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창 3:19; 18:27; 욥 10:9; 30:19; 34:15; 시 103:14; 146:4; 전 3:20; 12:7; 고전 15:47 등). 이 점은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 “땅”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즉 ‘아담’은 ‘아다마’를 취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이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시편 139:15도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결국 인간 존재의 취약성(脆弱性)과 사멸성(死滅性)을 암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러기에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인간의 교만함을 고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6계명과 이에 수반되는 다른 많은 규정들(출 21:14; 레 24:17; 민 35:16-21; 신 19:11-12)도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엄하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를 흘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말살하는 행동이요(창 9:6),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월권(越權) 행위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에 손상을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에 해를 주는 온갖 폭력, 가난과 굶주림, 공해, 전쟁, 낙태 등은 가능한 한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람이 살아 있는 존재, 곧 ‘네페쉬 하야’(a living being)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준다. 여기서 ‘네페쉬’는 육체와 대비되는 영(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을 포함한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 둘이 한데 묶인 존재, 곧 전인(全人; a whole being)인 것이다. 그런데 개역이나 개정 개정판은 1611년판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을 따라 ‘네페쉬 하야’를 “생령”(生靈; a living soul)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육체를 영혼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희랍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 사상은 사람을 이처럼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 (3) 여자의 지위와 역할 (18절)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아시고 그의 상대자를 지어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 지어줄 상대자는 다름 아닌 “돕는 배필(配匹)”이었다. 히브리어 원문(‘에제르 크네그또’)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히브리어 원문의 ‘에제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로 사용된다.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도움”(Help)이라는 낱말은 바로 이 ‘에제르’(‘에베에셀’[“도움의 돌]의 ‘에셀’이 바로 이 낱말을 가리킴, 삼상 7:12)의 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일을 돕고 거들어주는 다분히 종속적인 행동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도움을 뜻한다.

다음에 ‘크네그또’는 “짝” 또는 “상대자”(partner; counterpart)를 뜻하는 ‘네게드’라는 낱말이 변형된 것이다. 여기서 짝이나 상대자는 결코 종속적인 지위에서의 짝이나 상대자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의 짝이나 상대자를 가리키며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전체로서 볼 때 이 구절은 “그의 짝(또는 상대자)으로서의 도움”으로 직역할 수 있다. 새 번역은 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공

동번역은 다소 불충분하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그의 일을 거들 짝”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원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도움의 존재로, 그리고 남자와 대등한 그의 짝으로 지어졌음이 분명해진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창 1:27).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비록 이들이 동등하기는 하지만 그 하는 일이나 역할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이유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본래적인 구별을 무시하려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마땅하다. 달리 말해서 여자는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의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구별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과 ‘구별’은 같은 개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 (4)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 (19-22절)

남자에게 알맞은 짝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맨 먼저 흙(‘아다마’)으로 모든 들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빚어 만드셨다. 그리고서 그것들을 남자에게로 이끌고 가서서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보셨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들짐승과 새들을 보고서 그것들이 자기에게 알맞은 짝(‘에제르 크네그또’; 20절 하반절)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를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새번역);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공동번역).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자신의 ‘에제르’라 부르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걸맞은 이름을 따로 지어주었다. 그가 지어준 이름들은 그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19-20a절).

남자가 들짐승과 새들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짝을 발견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한 후 그 빈 곳을 살로 채우셨다(21절). 그다음에 그 갈빗대를 가지고서 남자의 짝이 될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갈빗대를 어느 쪽에서 뺐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갈빗대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갈빗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첼라’는 사실 “생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지탱해 주는 존재요 남자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존재, 또는 남자와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임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남자가 나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짓는 것(3:20)이나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요,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는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여자가 남자의 하체나 상체의 일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중심부에 있는 갈빗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역시 여자가 본질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존재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남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일에 남자의 역할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독립적인 인격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절정(絶頂)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남자(7절)보다는 여자(18-22절)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1장에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상세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그리고 2장에서 보듯이 남자만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즉 남자만의 창조는 미완(未完)의 창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창조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완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부부 공동체 내지는 가정(家庭)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개별적인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community)과 사회성(sociality)을 가진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공동체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부부 공동체 또는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결코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게 된 동기도 사실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다(전 4:9-12 참조).

나침반 바이블  
BIBLE